

# ‘리딩뱅크’ 탈환 진옥동 신한은행장, 연임 ‘파란불’

역대 최대 순이익... 4년만에 국민은행 제1  
디지털 전환 성공-글로벌도 탁월한 성과

업계 “입지 탄탄... 재연임 안될 수 없어  
부회장직 신설엔 승진 가능성도 높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그룹 내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평가 지표인 실적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맞수인 KB국민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를 탈환한 것을 비롯해 업계 최대 이슈인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진 행장이 임기 중 빈번 성과를 두고 재연임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신한금융그룹이 부회장직을 신설한다면 지주 임원으로서의 영전할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진 행장은 임기 마지막 해의 실적은 물론 디지털, 글로벌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새 실적 1.2등급을 석출하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증명했다.

신한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9094억원으로 전 분기(8200억원) 대비 10.9%, 지난해 같은 기간(7593억원)에 비해 19.8%가 증가했다.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은 2조 59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1301억원)에 비해 21.7%가 증가했다. 분기 기준, 누계 실적 기준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2조 4944억원)을 훌쩍 뛰어넘으며 KB국민은행(2조 5506억원)을 제치고 2018년 이후 4년 만에 ‘리딩뱅크’ 타이틀을 가져왔다.

“중국의 명문(名門)이 달려 있다”며 은행의 생사와 존망까지 거론했던 디지털 부문에서는 약 195억원을 투입, RE·Platform Tribe(혁신적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그룹 내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뉴 앱 개발)·조직을 신설하며 뉴 앱(New AP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0월에 탄생한 뉴 솔(New SOL)은 2018년 신한 솔(SOL) 출시 이후 수집된 고객 의견 데이터를 분석하고, 1년여간 ‘뉴 앱 프로젝트’의 기획 및 개발과정에 고객자문단 1만명이 직접 참여해 업그레이드했다.

이는 기존 솔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빨라진 앱 속도와 나만의 홈 화면, 뉴 에체, 스토리뱅크 등, 뉴 솔의 새로운 기능들이 고객에게 큰 관심을 끌면서 전환 이용 고객이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뉴 솔의 이용 고객은 730만 명을 넘겼다. 기존에 솔을 이용하는 고객의 88% 이상이 뉴 솔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접속이 없었던 솔의 신규 이용 고객 수도 20만 명 이상 늘었다.

10월 말 기준, 뉴 가입자수는 1500만명, 월간활성가입자수(MAU)는 980만명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뉴 솔 출시를 통해 진정한 고객중심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카카오톡 등 빅테크를 넘어 금융권을 대표하는 금융앱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영업점 통폐합으로 인한 금융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로봇’ ‘스마트리뷰’ 라운지 스프린트 혁신 영업점 등의 특화점포를 연이어 오픈했다.

신한은행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리딩뱅크 타이틀을 사수했다.

3분기 기준, 신한은행은 10개의 해외법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1971억원 900만원)에 비해 59.25%가 늘어난 3091억 2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2129억 6800만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서 하나은행(807억 3800만원)과 KB국민은행(274억 4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기린연의꽃’으로 불리는 서울시 금고지기 재유치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4년간 서울시의 세금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 및 각종 금융 등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등급은 일반특별회계(44조 2190억원)를, 2등급

는 기금(3조 5021억원) 관리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금과 지정에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했다.

또한 금요업무 운영능력과 금융기관의 비대면 디지털 금융 추세를 반영한 ATM과 같은 시민 편의성 항목 등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급과 유치를 통해 ‘서울시 지자체 금고지기’라는 명성과 함께 대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을 비롯해 ESG 경영과 비대면 디지털 금융 등에서 타 은행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권은 경영실적을 비롯해 ‘리딩뱅크·서울시 금고 은행’이란 명성,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보면 연임이 안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진 은행장이 그룹 내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고, 지주 핵심 인사로 영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진 행장은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약속 후보군에 조응병 현 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과 함께 이름을 올린 상태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조 회장의 3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신한금융이 타 금융사와 같이 부회장직을 신설하면, 부회장 후보 1순위는 진 행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부회장직 신설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CEO는 실적 수치로 말하는 것”이라며 “진 행장은 임기 동안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뛰어난 경영실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 디지털 부문에서도 뉴 솔, 디지털고 등 고객 중심의 체질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것을 보면 연임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주 부회장 이야기도 있는데, 연임이든 부회장 승진이든 어떤 방식으로 그룹 내 주요 자리는 꿰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행장은 지난 2019년 3월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해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말, 첫 연임에 성공했다. 두 번째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이성노 기자 sun951@sorbiz.co.kr

# 한스경제지

hansbiz.co.kr



15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오늘 주목할 경제뉴스

한은 “내년 세계경제 회복될 나라 없어 미국·유럽·중국·인도 동반 경기 위축”

내년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기까지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내년 세계 경제 특징·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2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웃돌며 공백을 메웠으나 내년에는 버팀목이 될만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미국의 경우 플러스(+ 성장)는 가능하지만 통화 긴축 등에 잠재성장률을 밑출 것으로 예상했고, 유로 지역은 공급·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 탓에 아예 역(-)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도 부동산 관련 부실, 제로 코비드(코로나19 감염자 수 0 목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주요국의 경기 위축과 통화 긴축은 주변국의 경기에도 부담을 주고, 특히 신흥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취약한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조정 여파가 더해지면 내년 성장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특히 내년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 미국·중국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절화(Fragmentation) ▲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 “집에서 부담없이 한잔”... 식지않는 ‘저도주’ 인기

달콤한 맛·가벼운 도수로 꾸준한 사랑  
업계 연말모임 앞두고 소비자 공략 나서  
롯데칠성 ‘별빛 청하’ 화이트 와인+탄산  
배상면주가 스파클링 ‘빙탄복’ 파티용 탁

엔데믹 전향 이후 처음 맞는 연말을 앞두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말 모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주류업계가 특별한 연말을 보내게 해줄 주류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홍술’ 트렌드가 지속된 가운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저도주’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별빛 청하 스파클링’은 청하에 화이트 와인과 탄산을 블렌딩한 제품이다.

청하의 깔끔함과 화이트 와인의 섬세한 탄산이 함께 느낄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기존 청하(13도)의 절반 수준인 7도로 낮췄다.

바하늘을 연상시키는 라벤더와 와인병을 닮은 패키지는 고급스러운 연말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다.

배상면주가의 스파클링 북본자술 ‘빙탄복’은 색소와 향료를 첨가하지 않고 고장산 북본자로 빚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탄산을 가미해 청량하면서 산뜻한 맛이 난다.

어떤 음식과 곁들이든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과 함께 즐기는 연말 파티용 주류로 제격이다. 알코올 도수 7도로 술에 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얼음을 넣으면 ‘온타락’으로 더욱 가볍게 마실 수 있다.



빙탄복 배상면주가 제공

또 스파클링 청주 ‘심술7버블’ 또한 연말 모임에서 다 함께 즐기기에 좋은 제품이다. 우리쌀로 빚어낸 ‘심술’에 풍선껌의 달콤함과 탄산감을 더해 새디란 맛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알코올 도수 7도로 술의 맛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선글라스를 낀 당나귀가 풍선껌을 불고 있는 신나는 패키지와 핑크빛 색감은 예쁘고 특이하고 트렌디한 연말을 연출할 수 있는 대안이다.

덴심사이더의 ‘신애유자’는 유자와 꿀, 로즈마리, 생강이 만난 유자사이드 제품이다. 함성착향료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 유자와 국산발효 본연의 맛에 집중할 수 있다. 산뜻하고 새콤한 유자에 생강과 로즈마리의 풍미가 더해져

파티의 분위기를 더욱 개성 넘치게 만들어준다. 신애유자는 식전주나 다양한 음식과 함께 마리아주로 즐기기에 좋다.

하이트진로는 대표 과일주 매화수 두 번째 제품인 ‘매화수 화이트’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매화수 화이트는 화이트와인과 청매실 원액을 최저 비율로 블렌딩해 상큼한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매화수보다 당도를 낮추고 화이트와인 함량을 높였다. 이음에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기존의 매화수는 달콤한 맛과 부담없는 알코올 도수로 저도주 선호층에서 꾸준히 사랑받으며 올해 10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면서 “이번 신제품은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지원 기자 jwan04@sorbiz.co.kr

“텀블벅에서 디어마더를 검색하세요. <https://tumbbug.com/dearmotherbook>”

# ‘디어마더’ 엄마의 삶과 시간, 역사를 엄마의 언어로 기록하는 프로젝트.

인터뷰 전문 기자와 함께 하는 가장 특별한 인터뷰

가사들이 직접 한 말 한 말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정식 인터뷰이처럼 엄마와 마주 앉아 ‘디어마더’ 속 질문을 던져 보세요.

인터뷰 질문과 인터뷰 팀이 담긴 ‘디어마더 북’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날을 앞둔 5월 1일 인터뷰 콘서트도 열립니다.

배우 문소리씨 어머니이자 시니어 모델인 이향란씨를 김지은 한국인보 기자가 직접 인터뷰하는 현장을 가까이에서 만나 보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어머니날, ‘디어마더’와 함께하세요.

문의: hankookillbo@gmail.com

